

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• 미래창조 금융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2016.12.7(수)			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	담 당 자	금융정책과 고영호 서기관(02-2100-2831)

제목 : 금리상승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

“금융안정 담당기관이 공조하여 금리상승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1. 회의 개요

- 2016.12.7(수) 08시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정은보) 주재로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금융안정 담당기관들의 차관보급이 모여
- 최근 금리동향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

- 일시 / 장소 : '16.12.7. 08:00~09:00 /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- 주요 논의사항
 - ① 시중금리 동향 점검
 - ② 금리상승시 대응방안 및 진행상황 공유
 - ③ 정책금융기관(주금공, 신보, 기보, 산은 등) 역량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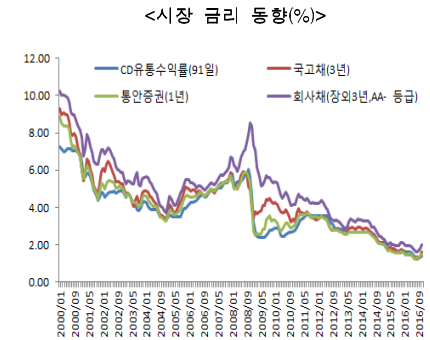
2. 주요 논의 결과

가. 금리상황 평가

-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
-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
- 금리 상승세가 지속시 기업, 가계 등 국내 경제·금융 전반의 부담이 증가*될 가능성이 있으므로

* 기업(자금조달비용 상승), 가계(이자부담 증가), 금융회사(보유채권 평가손) 등

-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음



나. 대응방향

기본방향

- 각 기관들은 금융시장 안정의 경우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함
- ① 시장 안정방안이 즉각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,
- ②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시장 안정방안을 시행하면서,
- ③ 과잉 또는 과소 대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조율된 대응(Coordinated Effort)을 추진하기로 하였음

[1] 금융안정 담당기관간 협력 강화

① 세부방안으로는 먼저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

- 이번 금리상승은 미 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파급경로가 다양하므로
-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문을 타겟팅하여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
- 현재 대응 수단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며, 대응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Policy Mix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함

[2] 모니터링 대폭 강화

②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음

- 금융위/금감원 특별점검반에서 시장을 밀착 점검하고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부문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하였음
- 또한, 최근 대출금리 및 공시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, 합리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였음

[3]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

③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

① 먼저, 신·기보의 보증 확대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과 중기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음

② 특히, 내년 1/4분기에는 산은 등이 증권사의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,000억원까지 인수하는 「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」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중위험 회사채 발행 여건을 개선하고

③ 현재 컨틴전시 플랜으로 준비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자산 운용사 변경 및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필요시 즉각 재가동되도록 할 예정임

[4]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

④ 아울러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함

① 정책서민금융,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

- * 정책금융 : 은행권 휴면예금 신규 출연 등 공급여력을 금년(5.7조원)보다 확대
- * 중금리 대출 : 은행권 공급목표 5천억원은 '17년 상반기 중 소진 예상
→ 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 등과 협의예정

②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 공사의 정책모기지를 개편하는 한편,

③ 현재 금융위/원이 은행권 등과 함께 TF를 구성·운영하여 내년초까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포함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

[5]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

⑤ 또한, 가계(예 : 주택금융공사 등), 기업(예 : 신보·기보 등)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음

다. 당부말씀

□ 이와 함께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

① 먼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나타나는 **쏠림현상**
(Herd Behavior)*을 금융회사 스스로 축소해 나가야 하고,

※ 예 : 금리상승기에 이익 확대를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상품 판매,
투매 등 채권보유량의 급격한 축소 등

②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중소기업, 서민·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,

③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공동의 대응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의 주역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
3. 향후 계획

□ 추진방안들은 가급적 연내 준비작업을 모두 마무리하는 등 필요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,

○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널리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	---	--